



배포 일시 2026. 08. 04.(화) 15:00
보도 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 분량 총 33매

담당자 해인(상근활동가)
휴대 전화 010-3563-2750
전자 우편 plus@deaf-lgbt.kr

농인성소수자 · 연대시민 1,073명과 시민사회단체 57곳의 국립국어원 연서명 제출 기자회견 “혐오수어 없는 한국수어, 국립국어원에 요구한다”

- 한국농인LGBT+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금일 10시, 국립국어원 후문에서 농인성소수자 · 연대시민 1,073명과 시민사회단체 57곳의 연서명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에 한국수어 내 성소수자 혐오수어 근절과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개발한 성소수자 대안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농인성소수자와 연대시민 연서명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농인성소수자 당사자,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농인당사자, 장애인권활동가가 연대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 연대발언 1: 우지양(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 연대발언 2: 소주(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및 HIV/AIDS인권행동 알 상근활동가)
 - 연대발언 3: 김지연(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
 - 연대발언 4: 진은선(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및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기자회견 발언문 1부
2. 기자회견문 1부
3. 국립국어원 혐오수어 관련 문제제기 경과 1부. 끝.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국농인LGBT+ 상근활동가 해인입니다.

한국농인LGBT+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오늘, 농인성소수자 및 연대시민 1073명과 시민사회단체 57곳의 요구를 담은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제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국립국어원이 성소수자 혐오수어 근절을 위해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직접 만들고 선호하는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등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한국수어에서 성소수자는 혐오적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게이는 항문성교를 하는 남자, 레즈비언은 서로 몸을 비비는 여자라는 노골적인 성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수어는 국립국어원이 작년 말 차별적 수어 연구를 위해 임시로 비공개 처리하기까지, 십 년이 넘도록 국립국어원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전은 한국어로 따지자면 혐오표현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용인한 성소수자 혐오를 농인성소수자, 즉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성소수자들은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음성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인 사회에서도, 성소수자 언어 투쟁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성소수자 혐오표현으로는 호모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동성애자를 뜻하는 영어 호모섹슈얼에서 유래한 호모는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혐오적이라기보다, 이것이 성소수자 혐오를 위해 오남용된 역사적 배경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수어에서 성소수자를 성행위로 표현하는 이 수어는 근원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떠한 맥락으로 쓰이든 명백한 혐오입니다.

그렇게 2019년,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모여 이 수어를 성소수자 혐오수어로 규정하였고, 2021년에는 긍정과 자긍심을 표현한 37개의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공개합니다.

2022년부터 국립국어원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널리 쓰이는 표현이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지난 해에야 처음으로 한국농인LGBT+에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도 연락이 없다 기자회견을 위해 연락하자 그제서야 두 번째 면담을 7월 말에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면담을 보고도 한국농인LGBT+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농인성소수자 당사자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혐오수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없거나 소극적입니다. 대안수어가 등재될 정당성은 이미 충분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여 5월 22일 아시아태평양농인성소수자 자긍심의 날을 시작으로 8월 2일까지 72일간 이어진 연서명에 농인성소수자와 연대시민 1,073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57곳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과 연서명 전달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확실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연대발언으로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우지양 님,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및 HIV/AIDS인권행동 알 활동가 소주 님,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 김지연 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및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 님이 발언해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기자회견 차례는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국립국어원 담당자에게 연서명 명부 제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한국어 음성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 1.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우지양입니다.

지난 7월 24일, 한국농인LGBT+는 국립국어원의 요청으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 내 차별적 표현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니 한국농인LGBT+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할 것과 한국농인LGBT+가 개발한 대안수어가 실제로 농사회에서 쓰이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면담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대안수어 게이, 레즈비언, 바이, 트랜스젠더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한국어라면 한글로 문자 기록이 남으니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어는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는 이상 그 기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성소수자 수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이란 기관이 존재하고, 말뭉치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농인LGBT+에서는 이를 연구할 예산도, 인력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인LGBT+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결과에 의문이 있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던 중, 국립국어원의 연구와 상반된 해외 사례 두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어 연구·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수화언어연구소에서는 「표준수어 확정의 원칙」으로 “전문용어나 특정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말, 일례로 IT 용어와 성소수자 관련 용어 등은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가능한 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가 사용하는 표현을 따라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국립국어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성소수자 수어를 비당사자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농인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가지의 성소수자 수어 표현을 정부 공인 수어 사전에 등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개발 과정 전반에 당사자가 참여하며 고유 수어를 가져오기도, 새롭게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인LGBT+의 개발 과정과도 같습니다. 한국농인LGBT+에서도 모든 수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녀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결혼 대신 예전에 사용되던 성중립 적인 결혼 수어를 가져오기도, 기존의 에이즈 수어에서 인상을 찌뿌리는 표정 대신 중립적 표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담당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농인들이 다 성소수자 수어를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등재를 통해 더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전에 등재함으로써 농인성소수자가 가시화되고 수어의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수어를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재함으로써 대안수어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농사회에는 성소수자 관련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먼저 정보를 알려야 농인들도 비로소 성소수자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수어 사용이 늘 수 있습니다.

또, 면담 때 성소수자 관련 수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차별 표현에 더 집중하며 차별적 수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작 농인성소수자가 배제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로 표현되는 결혼과 애인 수어가 차별적일 수도 있다고 논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표제어를 바꿀 순 없으며 남녀 대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표현을 변이형으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결혼과 애인이 남자와 여자만으로 표현되는데,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아닌가요? 결국 농인성소수자의 의견은 묵살된 채, 기득권을 가진 농인 연구자들이, 그보다도 청인인 국립국어원의 의견이 더 우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립국어원은 여전히 농인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 이해할 노력도 부족합니다.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의 책임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인LGBT+가 간단히 조사해서 발견한 사례도 누락된 것을 보고도 정말 연구를 철저히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 일이지만, 한 농인 게이가 커밍아웃한 뒤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농인성소수자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국립국어원은 9월 자문위원회 전에 농인성소수자의 현실을 제대로 연구하십시오. 회의 과정에도 소수자로서 농인성소수자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혐오수어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농인LGBT+의 대안수어도 등재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를 표현할 대안수어 없이는 성소수자의 존재도 언어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혐오를 없애는 것과 더불어, 소수자의 언어를 기록하고 존중하는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연대발언 2. 소주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및 HIV/AIDS인권행 알 활동가)

안녕하세요.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자 HIV/AIDS인권행동 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성욱입니다. 소주라는 활동명을 사용합니다.

저는 2024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의 원고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그당시 너도나도 승소의 기쁨으로 활짝 웃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농인LGBT+ 활동가 보석에게 연락이 왔던 것이 아직도 뚜렷이 기억납니다. 뉴스 등 농인들이 접하는 매체에서 승소 소식을 전달할 때 혐오수어가 사용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청인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마음껏 기뻐할 때, 농인들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접할 때조차 혐오적인 언어를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인LGBT+의 활동을 더더욱 응원하게 되었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동성애자를 동성연애자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동성애자라고 부르라고 세상에 요구했습니다. 동성애자의 관계와 사랑이 ‘동성연애’라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과 시간은 단지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세상에 다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동성연

애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성애자라고 부릅니다.

HIV 감염인을 ‘감염자’ 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염자’ 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HIV/AIDS인권운동은 HIV 감염인 및 에이즈환자의 보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감염인’ 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실행했습니다. HIV/AIDS인권운동은 우리 사회가 HIV 감염인을 떠올릴 때 HIV라는 바이러스와 에이즈 낙인, 공포를 떠올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떠올리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감염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우리 스스로를 다양하게 정체화하고, 그만큼 다양한 언어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젠더플루이드, 에이섹슈얼/젠더 등 LGBT 알파벳 4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합니다. LGBT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체성의 성소수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하는 시간과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잘 몰랐던 우리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지칭하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게 그저 나라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변화가 필요하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수어에 있는 성소수자 혐오 수어를 이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일들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리키는 말과 언어를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바꿔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혐오수어 대신 대안수어를 사용하자는 것은, 다시말해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바꾸자는 것은, 단순한 단어, 표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훼손하던 어떤 사람, 인간, 집단의 존엄성을, 이제는 훼손하지 말자고 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 성소수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과 언어를 스스로 정하고 제안할 권리가 있고 자격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누구보다도 국립국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에 혐오가 있다고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립국어원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립국어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가 연명해서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혐오없는 한국수어를,

국립국어원에 요구합니다.

연대발언 3.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농예술 활동 중인 농(農)아티스트, 한국농인LGBT+ 대안수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성소수자 엘라이 김지연입니다. 농아티스트로서, 또 엘라이로서 국립국어원에 대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창작을 통해 나의 존재를 긍정하고 확장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이 규정한 수어사전 안에서, 농인성소수자 동료들은 예술을 할 때조차 자신의 존재를 모욕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만약 ‘농인’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병어리’라는 수어로 등재되어 있다면, 농인인 저 역시도 제 존재를 모욕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대하는 예술가로서 이를 지켜보는 것 역시 참담합니다. 왜 이성애자는 성행위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노골적인 성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나요? 농아티스트로서 예술의 재료이자 제 삶의 서사인 수어가, 국립국어원이라는 공공기관의 방관 속에서 농인성소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술과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통역 현장에서, 통역사들은 ‘성소수자’라는 한국어 발화에 대해 혐오수어를 사용할지, 대안수어를 사용할지 취사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술 현장에서는 주제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고, 퀴어 역시도 더 많은 예술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지 성소수자 예술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관객들도 문화예술에 활발히 참여하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역사들은 성소수자를 대안수어로 사용할지, 혐오수어로 사용할지 선택적으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통역사는 퀴어퍼레이드 행사에서 멀쩡히 대안수어를 사용해 잘 통역해 놓고도, 정작 대중들이 모이는 대형 유명 가수 공연장에서는 다시 혐오수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들 앞에서는 존중하는 척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 앞에서는 혐오수어를 고수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왜 혐오수어를 사용했냐고 물어보니, 국립국어원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며 핑계를 대는 이 현실 자체가 기만적이고 위선으로 느껴져 너무나 부끄럽고 분통이 터집니다.

예술은 존재를 확장하고 표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이 혐오수어를 방치하는 동안, 공공의 통역 현장과 예술 무대에서는 사전에 등재된 공식 수어라

는 이름 뒤에 숨어 혐오와 비하가 당당하게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농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며 혐오수어를 방치하고, 대안수어 등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독도는 분명 한국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 땅이라고 지도에 적혀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를 수정하기보다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백 명이, 다음엔 천 명이, 그 이후엔 만 명이 되어 결국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하고, 이는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대안수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무책임한 꾀변입니다. 자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성소수자 대안수어 개발에는 농청년, 농대학생, 농예술가뿐만 아니라, 농부모, 목사님, 농아인협회 어르신들까지 농사회의 전 세대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치열하게 검증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대안수어가 널리 쓰이는 증거를 제시하라니요. 그리고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결국 청인인 국립국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알고 이해하며 공감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소수자 혐오수어만이 사전에 등재되어 표준처럼 군림하는 환경에서 당사자가 대안수어를 사용하려면 아우팅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엘라이에게도 주변의 시선 속에서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당당하게 사용하려면 큰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당사자가 만든 대안수어 16개를 정부 공인의 수어 사전에 등재하였고, 일본은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공동체의 용어는 당사자의 표현을 우선해야 한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사례들이 많은데 국립국어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한 것인가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문자가 있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는 문자로 흔적이 남지 않는 언어입니다.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를 모으기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하고 조사하는 데엔 예산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에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당사자 단체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한국 농사회가 성소수자 혐오수어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성은 단지 혐오수어를 사전에서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들과 농사회가 함께 만든 대안수어를 등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혐오수어 없는 한국수어가 보장될 때, 비로소 모든 농인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연대발언 4. 진은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및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진은선입니다.

현장에서 한국농인LGBT+ 동료들과 수어 표현을 함께 고민해 온 시간은, 언어에 담겨 있는 차별을 인식하고 서로 배우며 현장을 바꿔 온 소중한 경험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구조적 폭력에 맞서온 6년의 투쟁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함께 싸워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시작점인 언어, 서로를 호명 하는 말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라면 어떻게 민주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동료 시민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국립국어원의 사전과 국가 공식 매체에 혐오 수어가 ‘널리 쓰인다’, ‘표준’ 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방조하고 묵인 하는 것입니다. 혐오의 언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될 때 배제와 폭력이 용인되고 차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목적은 일상과 삶의 영역에서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규제해야 할 차별행위,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토대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혐오표현 규제만을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역시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는 삶의 현장에서 차별행위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집행해야 할 가장 긴급한 책임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에 대한 혐오를 두고,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농인성소수자와 장애 여성들은 나의 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서로를 발견하며, 모욕과 멸시에 맞서 투쟁 해왔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대안수어 등재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십시오.

혐오의 언어를 깨부수고 자부심의 언어를 세우는 이 싸움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가 구분 지어 왔던 정상 규범과 낙인을 넘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차별에 맞서며 일궈온 우리의 삶을 증거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혐오 수어 폐지를 위한 투쟁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인성소수자의 삶과 경험이 반영된 언어, 평등이라는 인권의 언어가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과 맞서 싸울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는 것을 국립국어원은 막지 마십시오.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평등의 말을 반영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자유발언. 까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성인의 액션팀 소속인 까치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행성인은 저항하고 행동하며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성소수자 당사자 및 엘라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행성인의 가치에 따라 저는 한국농인LGBT+가 개발한 대안수어를 널리 사용할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이 아닌 평등한 대안수어가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등재되길 바라는 농사회 속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비롯한 수어 사용자와 연대합니다.

한국수어는 농인 당사자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등재된 한국수어는 농사회 속 당사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언어 표현으로 묘사하는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지 정의하며,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소수자 농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수어 사용자가 언어 표현으로서 소수자를 생각에 담고 그 생각을 발의할 때 마다 소수자 배제적인 수어를 사용함에 있어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조금씩 확산됩니다.

국립국어원은 혐오수어가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현황을 외면함에 있어 농사회 속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어 사용자의 혐오와 편견을 조성하는 혐오수어를 한국농인LGBT+에서 개발하여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안수어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차별적 수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대안수어 정립 및 사

용하겠다고 약속한 국립국어원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또, 한국농인LGBT+의 활동가들이 전문적 자문을 받아 개발하고 농사회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안수어를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등재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언어 표현을 정식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농인성소수자의 삶 외면 말라! 성소수자 혐오수어 인정하고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수어 등재하라!

그동안 한국수어에서 성소수자는 혐오적인 수어로 표현되어 왔다. 국립국어원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도, 게이와 레즈비언을 성행위로 표현하는 수어가 국립국어원이 지난 해 비공개 처리하기 전까지 버젓이 등재되어 있었다. 이성애자의 삶이 성행위로만 설명되지 않듯, 성소수자의 삶도 성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성애자는 성행위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농인성소수자는 성행위로 표현하는가? 이는 성소수자를 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명백한 혐오와 차별이다.

2019년 12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모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담은 수어들을 ‘혐오수어’라고 명명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선언했다. 청인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검토, 그리고 농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농인 청년활동가와 한국수어 연구자 등 농사회 전문가들의 언어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당사자주의와 인권감수성, 언어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다.

대안수어가 농인성소수자의 삶에 미친 영향도 분명하다. 2023년 농인성소수자 실태조사에서 면접에 참여한 농인성소수자 11명 모두 대안수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대안수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었다는 사람, 혐오수어에 문제를 제기할 언어가 생겼다는 사람, 대안수어를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존중과 지지를 느꼈다는 사람이 있었다. 2025년 진행된 ‘성소수자 수어 챗린지’에도 139명이 참여했다. 대안수어는 이미 존재하며 실제 농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농인LGBT+는 2022년 9월 국립국어원에 『한국수어사전』의 혐오수어를 삭제하고 대안수어를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국립국어원은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답변했고, 같은 해 4월 24일 자문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국립국어원은 농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를 배제한 채 혐오수어의 존치를 결정한 것이다.

널리 쓰인다는 이유로 혐오수어를 유지하는 것은 차별을 재생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혐오수어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농인성소수자가 대안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원치 않게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우팅과 차별을 우려하는 당사자에게 먼저 대안수어를 널리 사용하라고 요구한 뒤, 널리 쓰이지 않으니 사전에 등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구조적 차별을 외면하는 궤변이다.

2025년 4월, 국립국어원은 한국농인LGBT+와의 면담에서 2027년 『한국수어누리사전』 2차 개통 때 성소수자 수어를 등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차별적 수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적 수어를 마련하며, 그 과정의 자문위원회에 농인성소수자 당사자와 인권활동가를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1년 넘게 한국농인LGBT+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이미 연구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국립국어원이 아니라 주변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 한국농인LGBT+가 연서명을 시작하고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자, 국립국어원은 그제야 다시 면담을 요청했다. 국립국어원은 2026년 상반기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한국농인LGBT+의 추천을 받아 9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이 상반기 연구 결과라며 제시한 자료에는 중대한 누락이 있었다. 국립국어원은 해외 수어사전 10곳을 조사했지만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수어를 등재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개발한 16개의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의 「표준수어 확정의 원칙」도 성소수자 관련 용어처럼 특정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쓰는 표현을 가능한 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정말 농인성소수자의 삶에 관심이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국립국어원은 도리어 대안수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어는 문자 중심 언어와 달리 사용의 흔적을 수집하기 어렵다.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하고 실제 사용 양상을 조사할 권한과 예산, 인력을 가진 곳은 국립국어원이다. 자신의 책임을 농인성소수자 당사자 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립국어원의 결정은 농인과 수어통역사, 수어 교수자와 학습자, 언론과 공공기관이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판단하는 공적인 기준이 된다. 실제 통역 현장에서는 국립국어원 사전에 등재된 수어라는 이유로 혐오수어 사용을 고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농인성소수자는 심지어 동성부부 피부양자 소송 승소와 같은 기쁜 소식에서도 계속 혐오수어와 마주하고 있다.

사전에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혐오수어만 남겨 두고 대안수어를 배제하는 것은 농인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한국수어에서 지우는 일이다. 혐오수어를 임시로 비공개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혐오수어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당사자가 만든 대안수어를 공적인 언어로 보장해야 한다.

과연 국립국어원은 농인성소수자의 목숨이 달린 혐오수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더 이상 당사자 없는 공허한 논의는 필요 없다. 농인성소수자로서 혐오와 차별을 정면으로 마주해온 당사자가, 그리고 농인성소수자 의제에 대해 잘 아는 인권활동가가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삶과 언어를 다시 비당사자가 심사하고 허락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국립국어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6년 상반기 차별적 수어 연구 내용을 자문회의 전에 공개하고, 누락된 해외 사례와 국내 사용 실태를 당사자 참여 아래 다시 조사하라!

하나.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수어를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등재하라!

하나. 성소수자를 성행위로 표현하는 수어가 성소수자 혐오수어임을 공식 인정하고, 언론과 공공기관, 수어통역 현장에서 혐오수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권고하라!

혐오수어는 농인성소수자의 존엄과 안전, 삶이 달린 문제다. 국립국어원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기관으로서 즉시 성소수자 혐오수어 근절에 나서라. 국립국어원은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만든 대안수어를 등재하라.

2026년 8월 4일

국립국어원에 혐오수어 없는 한국수어를 요구하는

1,073명의 농인성소수자 · 연대시민과 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57개 시민사회단체(가나다순): 광주비건탐식단, 깨진구슬,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촌무지개유니온,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소수자연대풍 물패 장풍,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얼굴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연분홍치마, 이화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법행동 함께, 정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퀴어모여라,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 지구세계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빵고스란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퀴어문화협동조합 흥에 당, 투명가방끈,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 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흥반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HIV/AIDS인권행동 알

1.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혐오수어

수형 사진  수형 설명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왼 주먹의 5지 등에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두 번 댄다.	수형 사진  수형 설명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상하로 비빈다.
게이①	레즈비언②

□ 한국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①서로 항문성교하는 모습, ②서로 몸을 비비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 이때, 게이는 ‘남자’를 뜻하는 엄지손가락을, 레즈비언은 ‘여자’를 뜻하는 새끼손가락을 펴므로써 성별을 구분합니다.

○ 게이①은 양손의 검지와 엄지를 펴고, 오른손의 엄지를 왼손의 손목 부근에 비빔니다. 게이②는 양손의 엄지를 펴고, 양손의 손바닥이 맞대게 비빔니다.

○ 레즈비언①은 양손의 소지를 펴고, 오른손의 소지를 왼손의 손목 부근에 비빔니다. 레즈비언②는 양손의 소지를 펴고, 양손의 손날이 맞대게 비빔니다.

□ 그밖에 더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으로서 표현되는 수어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공적 담화보단 사적 맥락에서 성적 괴롭힘과 공격

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 게이③은 검지와 중지를 편 양손의 두 손가락 사이로 엄지를 끼운 뒤, 양손의 엄지를 서로 비빔으로써 다시 사이의 남성기를 맞붙이고 비비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 레즈비언③은 모두 편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겹쳐 말고, 양손의 두 검지와 두 엄지를 맞대며 서로 비빔으로써 여성기를 맞붙이고 비비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 레즈비언④는 주먹 쥔 양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운 뒤, 양손의 엄지를 서로 비빔으로써 클리토리스를 맞붙이고 비비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 한국농인LGBT+는 대안수어를 수록한 『농인성소수자 × 한국수어』를 발간하며, 이상의 게이①②③과 레즈비언①②③④ 등 총 7가지 표현을 혐오수어로 규정하고 농사회에 절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 게이①과 레즈비언①은 ‘항문성교’라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한국농인LGBT+의 문제제기 이전에도 농사회 내부에 일부 존재했으나, 게이②와 레즈비언②는 문제 없으니 계속 사용하겠다는 인식도 공존했습니다.

○ 그러나, 게이②와 레즈비언②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몸을 비비는 수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엄연히 혐오수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 여전히 공중파 뉴스의 수어통역에서도 게이①과 레즈비언①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행위의 표현이 덜 적나라하다는 점에서 게이②와 레즈비언②는 게이①과 레즈비언①의 대안처럼 여겨지며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게이와 레즈비언을 성행위로 표현하는 한국수어 단어 중, 게이①과 레즈비언②가 상기 이미지와 같이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한국수화사전』은 2005년부터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으로 편찬한 종이 사전입니다.

○ 『한국수어사전』은 2016년 4월 20일에 국립국어원이 개통한 웹사전으로, 『한국수화사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게이①과 레즈비언②는 모두 “한국수어 일상용어”로서 『한국수어사전』의 전신인 『한국수화사전』부터 수록되어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국립국어원은 2025년 11월경 소수자에 관한 차별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제어를 비공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게이①과 레즈비언②를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2026년 면담에서 사전에 계속 등재할지, 등재한다면 어떻게 기술할지(예컨대, 차별 표현이라고 기술할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후술할 ‘한국수어 내 차별적 표현 연구’ 기간 동안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후술한 대로 2025년에 1000여 개의 표제어를 담은 『한국수어누리사전』을 새로 개통하였으며, 2027년에 3000개의 표제어를 추가하여 2차 개통할 계획입니다. 2차 개통과 함께 『한국수어사전』 운영을 종료합니다.

○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누리사전』 2차 개통 시에 성소수자 수어를 등재한다는 방침입니다.

2. ~2019: 한국농인LGBT+ 설립 전,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항하는 농인성소수자들의 움직임

- 농인성소수자들은 한국농인LGBT+가 설립되기 전에도 한국수어 내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수어를 사용하여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한국어 단어인 ‘이반’에서 숫자 ‘2’를 추출해, 이를 바탕으로 성별표지를 추가함으로써 게이와 레즈비언을 표현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반 게이’와 ‘이반 레즈비언’은 모두 한국어인 ‘이반’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는 독립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3. 2020~2021: 한국농인LGBT+ 설립과 대안수어 정립

-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모여 2019년에 설립된 한국농인LGBT+는 한국수어 내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총 37가지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정립하였습니다.
 - (기본 용어[4]) 섹스[性], 인터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 (성별정체성[4]) 성별정체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 (성적지향-성정체성[9]) 성적지향, 성정체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이성애자, 퀘스처닝
 - (정체성을 포괄하는 지칭과 커뮤니티의 상징[4]) LGBT/LGBTQ/LGBTQI+, 퀴어, 성소수자, 여섯 빛깔 무지개

- (관계[6]) 커밍아웃, 아우팅, 애인, 결혼, 이혼, 엘라이
- (퀴어 커뮤니티 문화 용어[8]) 팸, 부치, 바텀, 탑, 올, 끼순이, 트랙킹, 트랙퀸
- (반드시 구분해야 할 용어[2]) HIV, 에이즈

□ 대안수어는 농인성소수자 당사자 간의 1차 개발, 인권활동가와의 2차 개발, 농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의 3차 개발에 나누어 당사자주의와 인권감수성, 그리고 언어학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1차 개발) 성소수자 관련 어휘 중, 한국수어로는 혐오수어로 표현되기에 대안적 표현이 필요한 어휘와 한국수어로는 아직 없는 어휘를 모아 37개의 단어를 추렸습니다. 당사자의 활동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37개의 단어에 대한 대안수어를 1차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 (2차 개발) 1차 개발 어휘에 대해 영역별로 인권활동 단체를 초대해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초대한 인권활동가에게 1차 개발한 37개의 단어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고, 각각의 의미와 의의를 점검받아 대안수어를 2차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 (3차 개발 및 최종 확정) 농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농가족의 농인 청년 활동가, 그리고 교수나 한국수어 연구자로 활동하는 농사회의 여러 전문가 총 열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와의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37개의 대안수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한국농인LGBT+는 『농인성소수자 × 한국수어』를 발간하고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대안수어 37개를 공개하고, 한국농인LGBT+의 농접근권 실천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한편, 37개의 어휘에 담기지 않은 어휘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안수어의 가치를 담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트랜지션) 트랜지션은 ‘트랜스젠더 + 과정’으로 쓰되, ‘과정’은 한 손을 바깥에 두어 사용하지 않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함으로써, 끝이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과정으로서의 트랜지션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트랜지션을 표현합니다.
 - (낙태/임신중지) 한국수어 ‘낙태’를 혐오수어로 규정하고, 한국어 표현 ‘임신중지’에 의미에 입각해 ‘임신 + 정지’로 사용합니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겸손한 나라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한국수어 ‘이스라엘’ 대신, 국제수화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 즉, 한국농인LGBT+가 제안한 대안수어는 농인성소수자 당사자, 인권활동가, 농사회 구성원과 연구자가 모여 체계적으로 개발한 표현이자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선호하는 표현으로, 국립국어원이 한국농인LGBT+의 사전 등재 요구를 단순한 제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 2022~: 혐오수어 삭제 및 대안수어 등재 요구

- 2022년 9월, 한국농인LGBT+ 『한국수어사전』 내 ‘의견 보내기’를 통해 국립국어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혐오수어인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 ‘동성애

자’에 대한 표제어를 삭제할 것.

- ‘에이즈’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틀린 뜻풀이를 수정할 것.

□ 국립국어원은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이에 대해 “3~4월에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다만, 사전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을 등재하는 도구라는 점에 대한 너른 양해를 부탁” 한다고 이메일로 답변해 왔습니다.

□ 2023년 4월 24일, 국립국어원은 한국농인LGBT+가 제기한 혐오수어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합니다.

- 국립국어원은 “한국농아인협회 등과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농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안수어 사전 등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기로 했”으나 추가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도 없는 회의에서 졸속으로 혐오수어 등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또한, ‘널리 쓰이는 표현’을 등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해 구조적인 차별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수어가 노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사회에서, 농인성소수자가 스스로를 긍정하고 자긍심을 가진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정체화하더라도 대안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커밍아웃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따라서 농인성소수자는 대안수어를 사용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안수어는 결코 ‘널리 쓰일’ 수 없는 구조

적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 대안수어를 사용하고 싶은 엘라이일지라도, 농인성소수자가 부정적이고 혐오적으로 인식되는 환경 속에서 대안수어를 드러내고 사용하는 데는 개인의 의지와 결단을 요한다는 점에서 역시 ‘널리 쓰이기’ 어렵습니다.

5. 2023: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본 대안수어

- 2023년, 한국농인LGBT+는 2023 농인성소수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초 30명의 농인성소수자를 인터뷰할 계획이었지만, 아우팅 우려로 인하여 결국 11명의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를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농인LGBT+가 대안수어를 개발하기 전부터 스스로 혐오수어를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느꼈던 농인성소수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농인성소수자도 많았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탓에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만 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수어라고 인식하진 못하였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또는 타인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혐오수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이를 대체할 표현이 따로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 한국농인LGBT+가 제안한 대안수어를 접했을 때 어땠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대안수어 덕분에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

- 혐오하는 사람에게 대안수어가 있음을 알리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다는 점에서 좋았다는 응답
- 대안수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엘라이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지지받고 있다고 느꼈다는 응답
- 대안수어를 계기로 청인 사회에서 성소수자 언어운동과 연결지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
- 즉,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들은 무엇보다 대안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대안수어를 통해 농인성소수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아닌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2025: 『한국수어누리사전』에 성소수자 수어 누락

- 2025년 2월,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사전』이 청인 중심으로 구성된 사전이란 비판을 받아들여 농인 당사자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한국수어누리사전』을 새롭게 공개합니다.
- 하지만 『한국수어누리사전』에는 기존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던 ‘게이’, ‘레즈비언’을 비롯해 어떠한 성소수자 관련 수어도 등재되지 않은 채 개통되었습니다.
- 한국농인LGBT+는 기존 사전에 등재된 혐오수어에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사전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등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농인성소수자라는 존재를 한국수어에서 지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한국농인LGBT+는 농사회에서 농인성소수자와 엘라이는 분명

존재하고, 한국수어에서 대안수어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성소수자 수어 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 ‘성소수자 수어 챌린지’는 한국수어로 ‘나는 (대안수어) 게이, 레즈비언, 바이, 트랜스젠더를 사용합니다.’를 표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는 챌린지입니다.
- 2025년 2월 17일에 시작된 성소수자 수어 챌린지는 5월 1일까지 총 139명의 참여를 기록하였습니다.

7. 2025: 국립국어원과의 첫 면담

- 2025년 4월 21일, 국립국어원이 한국농인LGBT+에 먼저 연락하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25일, 한국농인LGBT+는 국립국어원과 처음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누리사전』 1차 개통 시에 성소수자 수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지금도 기초적인 어휘임에도 등재되지 않은 어휘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한국농인LGBT+는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등재할 한국수어 표현을 검토할 때 단순히 농인 당사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당사자 혹은 그 활동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무리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를 ‘기록’하는 사전이라고 하더라도,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2025년 5월 8일, 국립국어원은 한국농인LGBT+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습니다.

- 2027년에 『한국수어누리사전』 2차 개통 시 성소수자 관련 수어를 (한국농인LGBT+제안한 대안수어와 상관 없이) 등재할 예정이라는 점.
-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대안수어가 등재되면 국립국어원 행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안수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
- 국립국어원은 2026년에 『한국수어사전』에 실린 차별적 표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농인LGBT+가 제안한 수어 표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수어 표현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
- 대안적 수어 표현이 마련된다면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등재되기 전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등재할 성소수자 수어 표현을 검토할 때 농인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포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
- 즉, 국립국어원은 2026년에 『한국수어사전』에 실린 차별적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2027년에 등재할 대안적 수어 표현을 마련하게 되고, 그 과정에 농인성소수자 및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8. 2026: 국립국어원 연서명

- 그러나 2026년이 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한국농인LGBT+는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한국농인LGBT+는 2026년 일년 간 진행되는 ‘2026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 용역 사업에 ‘한국수어 사전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조사·연구(해외 사례 및 정책 방향 조사, 국내 사

용 실태 조사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주변인으로부터 이미 해당 사업이 시작되어 회의도 수차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국농인LGBT+가 배제된 채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과연 그 연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한국농인LGBT+는 국립국어원에 다음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진행합니다.

○ 국립국어원은 차별적 수어 연구 자문위원회에 농인성소수자 당사자 인권활동가를 포함하라!

○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 내 혐오표현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국농인LGBT+가 만든 대안수어를 『한국수어누리사전』에 등재하라!

□ 〈혐오수어 없는 한국수어, 국립국어원에 요구한다!〉 연서명은 아시아·태평양 농인성소수자 자긍심의 날(Deaf Queer & Trans Asian Pacific Islander Pride Day)인 2026년 5월 22일에 시작되어 2026년 8월 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개인 연서명에는 1,073명, 단체 연서명에는 57곳이 참여하였습니다.

9. 2026: 국립국어원과의 두 번째 면담

□ 2026년 7월 21일, 한국농인LGBT+는 국립국어원에 기자회견 참관 및 연서명 수령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6년 7월 22일, 국립국어원은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2026년 상반기 수어사전 차별 표현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어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 다며 한국농인 LGBT+에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 2026년 7월 24일, 한국농인LGBT+는 국립국어원과 두 번째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성소수자 수어를 비롯해 각종 차별적 수어 표현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사전에 계속 등재할지, 등재한다면 어떻게 기술할지(예컨대, 차별 표현이라고 기술할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어 내 차별적 표현 연구’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2026년 상반기에 각 나라의 수어 사전에 어떠한 차별적 표현이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차별적 표현에 대해 대안수어를 제시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표현되는 결혼·애인과 같은 수어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로 느낄 수 있다고 연구진과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였지만, 이를 교체하거나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와 여자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변이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9월 말에 자문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후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사전편찬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등재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한국농인LGBT+에 자문위원회에 추천하고 싶은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누리사전』이 기술사전으로서 농사회에서 널리 쓰인다는 점을 확인만 한다면 사전에 등재할 수 있다며, 한국농인LGBT+의 대안수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2026년 7월 27일, 국립국어원은 한국농인LGBT+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 해외 수어 사전 조사 결과 및 『한국수어사전』 내 차별적 표현에 대한 검토 결과 등 2026년 상반기 수어 연구에 대한 보고서 형태의 책자는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12월 15일 이후에 공개할 수 있어서 사전에 공유할 수 없다는 점.
- 현재 『한국수어사전』 내 차별적 표현은 국립국어원 연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
- 국립국어원은 자문회의 후 12월 사전편찬위원회에서 자문회의 결과를 포함하여 차별 표현 등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는 점.
- 내년 하반기 『한국수어누리사전』 2차 개통 전까지는 자문회의, 사전편찬위원회 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점.

□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표현되는 결혼·연애 등 표현에 있어 남자와 남자와의 결합, 여자와 여자와의 결합을 변이형으로조차도 등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 한국농인LGBT+에 대안수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

를 요구하는 것도 국립국어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 대안수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은 이를 본연의 역할로 삼아 권한을 부여받은 국립국어원이어야 합니다.
-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문자와 같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말뭉치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엄연히 국립국어원의 소관 업무로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국립국어원이 차별적 수어 표현에 대해 제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해외 수어 사전 사례로 10가지를 제시하였지만,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수어 사전 개수는 54개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 국립국어원은 차별적 수어 표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사업 종료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며, 해당 연구 결과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동인성소수자 당사자가 참여해서 개발한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네덜란드 정부가 공인한 기관인 네덜란드수어센터에서 사전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처:

<https://www.hu.nl/nieuws/zestien-nieuwe-termen-in-nederlandse-gebarentaal-vastgelegd-in-queer-gebaren-glossary>

- 등재된 성소수자 수어는 무성애, 성별 이분법, 시스젠더, 본질주의, 페미니즘, 행위 주체성, 이성애 규범성, 호모내셔널리

즘, 정체성 정치, 교차성, 패싱, 폴리아모리, 특권, 퀴어, 전유, 가시성 등 총 16개 어휘입니다.

- 특히,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수어 사용자라고 해서 퀴어 용어나 은어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 라며 “이미 존재하는 용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이라고 설명하며, 가시화의 목적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등재하는 것이 충분히 유효한 방법임을 확인합니다.
- 이는 국립국어원이 이미 ‘널리 쓰이는 표현’ 만 등재할 수 있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농인성소수자의 소수자성과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등재함으로써 농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과 포용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국립국어원이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수어 연구·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일본의 수화언어연구소에서는 「표준수어 확정의 원칙」 으로 “전문용어나 특정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말(IT 용어, LGBT 관련 용어 등)은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가능한 한 반영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newsigns.jp/files/hyojun-setsume.pdf>

- 이는 명확하게 성소수자를 언급하며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어의 중요성을 원칙으로서 반영한 사례로, ‘널리 쓰이는 표현’ 만 등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립국어원의 기준이 얼마나 시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10. 성소수자 혐오수어의 현주소

- 한국농인LGBT+가 한국수어 내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해 6년째 문

제제기 중이지만, 혐오수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 특히, 농사회에서는 농인성소수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소수자 대안수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수어통역사들이 여전히 성소수자 혐오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성소수자 지지로 유명한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에서조차도 성소수자 혐오수어로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에 한국농인LGBT+는 “농인성소수자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공연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혐오수어 사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 퀴어퍼레이드에서 대안수어로 통역한 통역사도 정작 뉴스에서는 혐오수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명백하게 대안수어를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혐오수어를 사용해 통역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핑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해당 통역사에게 혐오수어로 통역하는 까닭을 물어보았을 때,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 이는 국립국어원이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한 결단의 필요성을 더 더욱 보여줍니다.
- 2025년 6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소수자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한 바 있으나, 수어통역사의 직무유기와 언론사의 외면에 뉴스 수어통역에서 여전히 혐오수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게 성소수자를 호명했던 순간에도, 동성부부 피부양자 소송 승소 판결의 순간

에도, 청인 성소수자가 감동과 기쁨을 누릴 때 농인성소수자는 혐오수어로 통역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 이에 한국농인LGBT+는 2025년 9월 4일, “수어통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보도준칙」 준수하라!” 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제도적 대응으로 혐오수어에 맞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 국립국어원이 농인성소수자의 목숨이 달린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한 문제제기에 결단을 내리기를 유보하는 동안, 성소수자 혐오수어는 국립국어원 공식 표현이라는 핑계 하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국립국어원의 분명한 성소수자 혐오수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대안수어를 서둘러 등재하여야 하는 까닭입니다.